

聖句

외치는 자의 소리에 가로
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
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
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
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四〇장三節)

社說
이제 우리 민족은 역사 이래
에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였
다. 약四十년 간이나 일본의
압박과 착취를 당하는 동안
이미 나라의 기틀이 빠지고
민족의 정신이 위축되어 해방
은 되었으나 일어난 힘이 없
었는데 불행히 국도가 양단되
어 다시 질식상태에 또 빠지
게 되고 더욱 북한에는 또 빠지
고 있는차에 동난이 삼년이나
계속되는 동안에 남북이 다
많은 인명의 손상을 당하고
생산기구의 파괴로 국력은 여
지없이 파탄하여 이제 통일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 2623番
編集人 吳 九 台
發行 主 筆 田 榮 澤

福音新聞
THE POK EUM SHIN MUN

危機에直面하여

한가지 길밖에 살아날 도
리가 있는데 유엔 우방은 마
치 불을 꺼준다고 하다가 불
도 꺼지지 않고 고지못하고 집만
들어놓고 병을 고쳐준다고 수
술을 하다가 수술을 제마치
지도 못하고 물러설려는 형편
이니 진실로 우리 민족은 생
사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형
편이다.
이제 누구를 원망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그렇다고 절
망하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과거에 남만
의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등지고 살아보겠다는

한국사람의 중대한심거리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거
리인 한국후전은 지난 8월
국련과 공산 양군의 연합장교
회의에서 공산측이 휴전협정의
를 다시 열고 휴전협정에 조
인할 준비를 진행시키자고 나
왔기때문에 휴전은 조속히
현될 가능성이 많이 보인다
즉 국련군 사령부에서 9월
발표 한바에 의하면 후전본
회의는 10월에 판문점에서 다
시 열리게되었고 현재의 판측
으로서도 일주간 내외에는 한
국측 태도 여하를 불문하고
후전조인이되리라 하고 한다.
그러나 한국측의 태도가 풀리
지 않음으로 국련측의 후전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강경한
것을 보이고있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李承晚大統領

政治會議를 九 日 靜觀
李·로共同聲明內約?
一週間內에休戰調印

한국측의 의견을 무시하고 휴전회담을 진행했던 아메리카
는 강경한 한국의 반대와 로발손특사를 파견하고
二주간에 걸친 회담을 하여오던바 합의를 보았다 한다.
8월 신문기자 회견에서 한국
후전문제에 대하여 미국은 평
화적인 수단에 의한 한국의
통일을 희망하고 휴전이 성립
된 뒤에도 이 선에 따라서
노력할것이다. 그러나 휴전이
성립된후 90일 이내에 열릴
정치회담 회의에서 만일 한국
의 통일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산군과 전쟁을 재
개하리라고 하는 이승만 대
령의 요구는 지지할수는 없다
한데

國連의單獨休戰調印의
混亂을招來할뿐

下外務長官談

변외무장관(下外務長官)은
지난 8월 10일자 와 단국 회
견에서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을
국련국 지휘에서 분리시킬때에
는 사전에 클락 사령장관에게
통고한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후전조인을 청천벽력으로 불시
에 하지않기를 희망한다 그렇
게하면 큰 혼란을 초래할것이
태도를 취한것은 외국사람도
비평하는 모양으로 우리의 큰
결점이오 큰 수처라고 하겠다
옛날 유대나라가 스스로 서나
아갈 자신이 없이 남으로 애
급이나 북으로 빠질뿐이나
수리아같은 나라를 의뢰하려고
한것은 우리와 같이 지리적
형세에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
이였는지 모르거니와 예언자들
이 늘 통탄하고 부끄러웠것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할
선언이 세상나라의 강한 세력
을 의지하려고 하는것을 책하
였다.
민족이나 국가가 서 나아가
는데는 반드시 무력이나 경제
력만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고하여 한국이 끝까지 반대하
더라도 기정방치대로 휴전을
단행할 미국정부의 음모를
을 표하였다.
클락 국련사령관은 지난 구
일 아슬에 서울에 가서 하리
손 대표를 만나우 이승만대
령을 방문하고 한국측에서 반
대해도 휴전을 단행하기로 한
대해도 휴전협정을 체결하
국련군사령부의 결정과 결하여
아이젠하워의 세지령을 전달하
고 그날 오후에 돌아왔다.
한편 이대통령과 로발손특사
와의 회담도 일단 남을 지은
모양이다 공동성명에 나타난것을
보면 한국은 국련측의 주장하
는 휴전성립에 방해는 아니하
겠다 하면서 사태의 동정을
정관할 태도를 암시하였다 그
것은 미국대통령의 언명한「통
일한국 실현」에 노력하겠다는
데 기대하는 까닭이라 본다.
나 국련사령부에서는 이 혼란
을 방지하기위하여 후전조인
을 발지한데 한국에 정식으로 통
고 할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후의 행동을 통고할것이다
한국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 그 결과로 생기는 혼란
에 대하여는 한국정부에서는
책임질수가 없다.
노란미 이상의(공화당)
저 그 민족의 혼이 살아야하
고 자립해 나가야만 강한
신념과 국민의 굳은 단결력이
더 중요한 조건이 되는것이다
만일에 해방이후에 남을 의지
하려고 하지않고 우리에게 자
립적 정신과 민족적 단결이
존재했는들 아모리 외부의
압력과 간섭이 있을지라도 오
늘날의 비참한 결과는 보지아
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살길은
어디 있느냐 이제라도 우리
민족이 정신을 차려서 민족적
정신과 혼을 가지고 외부에
세력을 의지하지않고 하나남
로 돌아가서 하나남만 절대로
믿고 의지할것이다.

戰線將兵의 현금

한국 전선에서 공산군을 향하여 싸우고 있는 우리 병사들은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 현금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들은 현금을 얻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그들은 현금을 얻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그들은 현금을 얻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구주지방에 대한 수 손해가 나고 주민의 생활이 처참하게 가문대 우리 동포가 대한을 참혹한 형편이니 우리가 이때의 동포애의 정신으로 같이 구제를 힘쓰자

한글 7월 26일 K.P. 동시에 대한 동포애에서도 서론인방과 결지방에 후후로 인하여 수해를 당하여 사람이 약 50명이 죽고 많은 행방불명 부상자가 생기고 그밖에 가족의 손상 유실은 이로 말수 없다 한다.

○그가운데도 피난민으로 벼가에 하모방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동포들이 많은 수재와 그 참혹한 형편을 상상할수 없다. 물론 사정도 없이 인간을 피하게 하나 사람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고 사랑으로 서로 돕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요새 북쪽에서는 세관에서 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하여는 비누 한개씩을 받게 해서도 꼭꼭 세금과 받고 특히 사치품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세금을 받기 때문에 보따리 장수하는 이들은 대당매를 당한다고 한다. 과연 잘 하는 일이다 정부에서도 철저히 하려니와 장사하는 이들도 좀 생각을 도리고 그보다 일반 우리 민중이 특히 (부녀들이) 자각을 해서 외국물건을 안쓰고 사치품을 금하기로 하여야 할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교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것이다.

가? 남의 마음은 알수 없지만 이런 야심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이상에 그 권을 내리는것은 정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 반면에 미국이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훌륭한 기개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런일이 없었다. 그리고 필립핀의 독립을 인정한것으로 보아서 그들의 마음을 알수 있다.

7월 26일 사형의 미인이 한 공산군에게 세관인들을 쏘아 죽인것이다. 그것은 공산군의 허위전언이다. 공산군들이 그 (T.T. 11월 11일) 제일 부수상으로 직책을 지내다가 이번에 숙청된것이다. 숙청이유는 인민의 적이라고 하였으나 공산군제자들의 지위와 권력 다들에서 말한공부의 세력에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 공산정부가 비밀경찰의 최고 책임자 베리야를 숙청한 물체이유는 공산주의의 탄압정책으로 공산주의를 감호하는 위생국들에 대하여 지난 1월에 북로연 유대인 의사 사건의 해임도 베리야에게 있다는 뜻이 보이면서 용화정책을 쓴다는 가연전설을 하려고 하는것에 있다고 본다. 동부 독일을 비롯한 최근의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등에서 반소공화국을 말한공부가 열대한 독재자임을 품고 자기 지위 세력을 강화하려는 전술로 밖에 볼수 없는것인즉 이번일로 진실한 사유를 찾는사람들은 결코 안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英國人의 눈으로 본 韓國 (2)

高 鳳 京

이 들어오면 결국은 그대가 전부 물속에 팔아놓을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바루 마친 한국에 그 구멍이 생긴것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면 그대를 탄사람들은 다 그 구멍을 고치기 위하여 힘을 합쳐야 할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앨리스의 참가하고 있다. 그런데 앨리스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남으로 도망해온것을 보아도 확실하다. 5월 앨리스가 "우리는 한국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쓰고 있다"고 한 말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말이 들어있는

은 지난 8월 상원에서 한국 휴전 조건을 명확화하지 아니하면 금년으로 중대한 결과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六月二十九日 클락 국회사령관서간에 나타난 휴전조건은 모택동 중공정권에는 아무 해도 지원하지않았다. 중공정권은 침략의 책임 또는 평화유지의 책임도 사실상 전혀 묻지 아니하였다. 국련에서 침략자 선언한 중공이 병력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소련의 원조 밑에서 지금까지 비행기 전차 대포 탄약을 공급해온 중공정

獨裁魔窟크레무린의內紛 베리야肅清은마의宿願 人民은塗炭에서 反坑

조련은 지난 10 라베렌치 베리야 제 1부수상을 함의제 (會議制) 공산당과 인민의 적 (敵) 이라는 죄명을 씌워서 이번에 국내국외에서 몇개인이 만의견과 반대의 태도를 취한것은 국가의 반역자로 진실로 간주하기 짜이없는일이니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고 노리고 있는 공공의 대적자를 대항하기 위하여 과거의 자기 주장이나 어떤 이해관계나 더욱이 일탈사항을 깨끗이 버리고 무조건으로 일선단결할것이다. 또 교회에서도 사상적으로 원수가 되는 공공의 적으로 더보라 싸우기에 모든 불리와 대립을 떠나서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정신무장을 하고 온교회가 하나남알에 하나이 되기를 바란다.

이 들어오면 결국은 그대가 전부 물속에 팔아놓을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바루 마친 한국에 그 구멍이 생긴것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면 그대를 탄사람들은 다 그 구멍을 고치기 위하여 힘을 합쳐야 할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앨리스의 참가하고 있다. 그런데 앨리스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남으로 도망해온것을 보아도 확실하다. 5월 앨리스가 "우리는 한국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쓰고 있다"고 한 말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말이 들어있는

西南地方 災民을

이번 구주지방의 수재로 각교회와 우리 동포들의 파해는 적지않다. 그 참혹한 고생중에 있는 동포들을 약간이라도 돌기위하여 재일 대한기독교 총회에서는 자 임원회를 열고 의논한결과 우선 정인수 목사를 위문하차로 현지에 파견하였다. 한편으로는 산하 각교회에 통첩하였는데 사정이 급하니만큼 하로라도 속히 보내 구주기를 바란다. 한다. 연락은 大阪市大定 區本在東道 二一四〇 大阪北部教會 (趙기善) 목사에게 하면 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벌써 지방교회에서는 특별히 부인회의 활동으로 구제금품을 열심으로 모으기도 있다

다. 앨리스의 성명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전후과계를 모르기는 그 참 뜻을 알수 있기에 묻어 무어라고 거기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말의 뜻을 이렇게 보려고한다. 지금 17개국 군대가 한국에서 공산침략군을 막기위하여

한글 7월 26일 K.P. 동시에 대한 동포애에서도 서론인방과 결지방에 후후로 인하여 수해를 당하여 사람이 약 50명이 죽고 많은 행방불명 부상자가 생기고 그밖에 가족의 손상 유실은 이로 말수 없다 한다.

○그가운데도 피난민으로 벼가에 하모방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동포들이 많은 수재와 그 참혹한 형편을 상상할수 없다. 물론 사정도 없이 인간을 피하게 하나 사람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고 사랑으로 서로 돕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요새 북쪽에서는 세관에서 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하여는 비누 한개씩을 받게 해서도 꼭꼭 세금과 받고 특히 사치품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세금을 받기 때문에 보따리 장수하는 이들은 대당매를 당한다고 한다. 과연 잘 하는 일이다 정부에서도 철저히 하려니와 장사하는 이들도 좀 생각을 도리고 그보다 일반 우리 민중이 특히 (부녀들이) 자각을 해서 외국물건을 안쓰고 사치품을 금하기로 하여야 할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교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것이다.

確信있는基督青年運動

現實浸透에協同이緊要

大韓 Y 金致默牧師談



김치묵 목사

그동안에 배운것이요... 二十 세기 후반기의 과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현실에 관 한 것인데 그리스도 신앙에 사는 자들의 현실 각 부문 에 길이 침투하는 생활은

韓國復興事業達成에는

各方面의緊急한連結이必要

國連本部 뉴욕 七月六日發 (U. S. I. S.) 국련 한국 부흥기 관 아사장 존 언올더 중장은 그 국제방송에서 현재의 한국 원조계획을 다시 확장하기 위 하여 한국정부와 국련간원조 본부와 군당국 삼자간의 극히 긴밀한 연락과 조정이 필요하 고 이러한 조정은 인간 유지 단체와 각 국련기관의 협조를 포함한것이라야 한다고 요지다

음과 같은 방송을 하였다. 「한국부흥사업은 다만 한 문 제에 세계사상에 일찌기 보지 못한 최대의 노력과 지능을 집중하게 될것이다. 현재 아직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까닭에 부흥사업을 대규모로 확장할 계획은 장해를 받고 있으나

자랑을 삼는 미국 프린스톤 신학교에서는 八월전부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하는 표어를 가지고 여름마다 방학을 이용하여 동교 성가대 를 미국 각지와 해외 각처로 내보내서 음악 전도여행을 하 므로 현재 서로 싸우고 불안 에 싸여있는 세계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의 거룩한 멜로디로 융화와 평화의 역할을 해오든 바 금년에는 특히 유엔군 국 동사령부의 초청을 받아서 二 十三명의 성가대원이 페비드 휴 존스 박사의 인솔로 약

프린스톤神學校聖歌隊

亞細亞各國에傳道活動

백오십명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특히 종교 음악으로



프린스톤 성가대일동

후 존스 박사의 인솔로 약

동이란 것은 우리나라에 있 어서 가장 필요한 일이다. 우리나라 백만이라는 신도들 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그밖에 모든 일에 있어서 신앙의 생활화 운동을 이리 낚으면 크다면 혁신이 이러 날것을 믿는다. 아메리카에서는 한 곳에서 약 七주간씩 있으면서 가정과 클럽과 농촌 직장 집단 로 하여 관한 신앙훈련을 주로 보았고 도라고는 길에

지금까지 상상이 사업을 성공 했고 주요사업은 거진 그 기초 준비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동이사업은 U. S. I. S. 가 이미 착수한 주요한 계획 들 다음과같이 들었다. 一 비료十五萬四千톤과 곡물 사 전론 발송 二 二千五萬 필 도야지에대한 도야지 호밀자 예방종두 실시 三 식민령용 사전이배만 본의 요목구입 수백처 향토개발 계획 발전소 심실개소 복귀 약五百萬畝의 학교용 설비 자재의 구입등의 목적에 자

금을 줄것 四, 다수의 여선구입 五, 농기구 생산용 기계공구 공급 二개원 기한으로 일본과 한국 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지난 大월九일에 그 본국을 떠난 그들은 현재 일본에서 각지를 순행중인데 이제 七월十四일경 에는 한국을 방문하여 부산을 위시하여 특히 전라지구 각지 를 방문하여 음악연주와 전도 집회를 할 예정인데 二十三명 대원중에는 이영구라는 한인학 생 한 사람과 양청안이라는 중국학생 한 사람이 들어있다 이 거룩한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그들에게 한국교회 의 특별한성원과 동성가대가 가는곳마다 복음적 은혜와 아 울러 음악적 성공이 있어서 전관중애 우물에 싸여있는 등 도의게 심령적 위안이 있기를 기대된다.

우리는 그들 수단과 방법보 다 하나님의 의지(意志)에 순종함으로서 그 위기는 해결 될것을 믿는다. 이 혼란과 격 동이 심한때에 있어서 교회는 세속적 세계가 생각하는 방 식 말고 오직 복음에서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확고한 주장을 명확 히 하여야 할 사명이 있는 것 이다. 예수그리스도의 부르심 심은 이 절대적인 십자가에만 의지하게 하려고 부르심 것이 다. 그것은 회개와 헌신을 요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전 세계교회를 향하여 전정과 인연을 끌어들이는 전 재 전정준비를 하는 일을 회개할 것! 을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는 더욱히 아메리카교회

教會에對한

友和

友和會에서는 데트로이트에서의 「교회와 전성」이라는 요 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을 발표한 것이 있다. 인간은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전과 진보가 있다는 오늘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자기파멸 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전성이라는 것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얻으 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런 수단과 방법보 다 하나님의 의지(意志)에 순종함으로서 그 위기는 해결 될것을 믿는다. 이 혼란과 격 동이 심한때에 있어서 교회는 세속적 세계가 생각하는 방 식 말고 오직 복음에서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확고한 주장을 명확 히 하여야 할 사명이 있는 것 이다. 예수그리스도의 부르심 심은 이 절대적인 십자가에만 의지하게 하려고 부르심 것이 다. 그것은 회개와 헌신을 요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전 세계교회를 향하여 전정과 인연을 끌어들이는 전 재 전정준비를 하는 일을 회개할 것! 을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는 더욱히 아메리카교회

(投書)

여하간 이번 수양회에는 생
기 있는 새 노래 단 한두가
지라도 준비하기를 준비위원들
께 부탁드립니다.

(점은이)



이 말에 누가 벌써 코웃음
치는 이가 있을듯도 하나 드
러 보십시오. 하기가등집회를
할때에 경건한 동요를 가르치
는것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유
가를 베풀어두었는가 생각하여
보시면 알수있는 일입니다. 한
년들의 심신에도 파란만 이르
지 않고 노래를 주십시오.

主張과呼訴
會뎨세이지

가 이 종대한 간증자의 선후
이러서기를 호소한다. 우리
그리스도신자 각 개인들이
파피의 무기를 맨드는 일과
그런 일에 종사하는 것을 거
부하고 그들의 영향을 억압과
독재와 전제의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 원인에게 공헌할 것
을 호소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할 자 없으
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에 인간을 구원할 능력 있
것이 없고 온 인류의 운명은
하나님외에는 좌우할자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함 것이다.

우리 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회가 현대에 있어서란 지
시가 가르치바와 같은 화해의
무저항 행동을 취할것을 지
하며 주장한다.

怪異한宣敎政策聲明

奴隸調定の補助金？

대한장로회총회 제卅八회총회 이후 분립동향이 농후하여 五月二十七일 부덕 개회 되었던 미국 남장로회 대한선 교단 정기총회에서는 대한예수 교 장로회에 대하여 요지 다 음과 같은 기묘한 정책 성명 을 발표하였다 하는데 한국인 으로서 분개함과 피상함을 느 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신 앙의 자유를 부르지고 이러서 는 사람들을 보조금과 구호물 자 여하로 얹어매어 보려는 것은 우수준 일이며 한국인의 거르지 근성을 사로 잡어 보 려는 묘책에 틀림이 없다. 미 선교회와 같은 것이 있어서도 실력	주미로 공부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무골충 같은 사람만 입학 시키겠다는 의지로 불 배에있는 성명이다. 그것이 서워서 신교의 자유를 못 를 한국인이 몇사람이나 있 가 한국은 국권의 혜택을 받 고도 불가한 것은 불가 하 고 절개하거든 어찌 하나남 신앙하는 한국백만 신도가 같은 선교정책에 희희낙락 라! 그성명 요지를 참고로 다음에 기재한다.	一 우리는 대구에서 문인 대 한 예수교장로회 총회를 한 국에 있는 공식장로회 단체인 로 인정하고 이 단체와 계
--	--	---

京都勉青創立記念

을 가진 자도 인정한다.

京都교회 면려청년회에서는
七月로 동회 창립 만二十四주
년을 맞이 하였는데 지난 十
四、五 양일간에 다음과 같은
기림행사가 있었다.
十四日 오후七時에는 이마이
고다로(今井好太郎) 목사
장려하여 기림강연회를 개최하고
장려후에는 면청 발전방법에
관한 좌담회가 있었고十五日
에는 오후七時에 기림예배를
드림후 四條교회 푸라스트밴드의
유입으로 음악회가 있었다.

聖經工夫

創
世
記

求道者

本書の内容 著述기는 천지개
벽의 사실에서 시작하여 유
대인의 선조인 아부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사적
을 기록하였다 제一卷에서
제十一장까지는 천지개벽사와
천 인류에 관한것을 기록하
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
계를 총괄한 유대인의 우주
관 인종관 세계관을 서술하
고 제十二장 이하에서는 즉
장으로서 유대인의 조상들의
전기를 기록하였다 이와같이
기록하는 사이에 말년의 장
조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기록
한것이다.

本書의特徵 이 책의 천지개
벽사는 그 이웃 여러 나라
바בל론 개벽사와 유사한것도
많이 보이나 그 중심 사상은
오직 유대인의 특색한것
으로 즉 철저한 유일신교의
사상으로 일관되어 있는것을
볼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가장 원시적인 이야기 중에도
신약성경의 근본이라고 할
세계관, 인생관 사회관이 불
거져 있는것이다 이런 의미
에서 창세기는 놀라운 하나
님의 계시의 서적이라 부른
다. 족장들의 전기에 있어서
도 보통 영웅전기와는 전연
새로운바가 있다 정복자나
개신정교같은 위대한 훈공도
없고 정치나 경제적 활동에
보통있는 점도 없고 그렇다
고 문학이나 예술면에 공적
이 뚜렷한것도 없이 다만
순수한 신앙으로서 시종일것
을 배우게되는 것이다 그것
이 즉 하나님 앞에 나타난
택한 백성의 역사다 그리고
로 이 전편에 넘치는 사상은
하나님께 대한 인류의
관계여하에 있는것이다 그
의미는 이 책을 읽는 때에
비로서 알수있을 것이다 또
그것이 성경전체를 일관하는
사상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을 택하여 훈련하시고 그
택하신 족속을 통하여 천

인류에게 축복을 하신것이다
그 사실은 이 책에서 그
단정(端恰)을 보이는것이다.
三本書의成立 우리가 보통 모
세의 五經이라고 부르는 그
첫권인 이 책은 다음의 네
권과 함께 여러가지 자료에
서 편찬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것이다 즉 여호와전과
열로히전(一)에서 여호와
열로히전이 되고 다시 신명
기전(一)이 합하여 결국
기원전 大세기 중엽에 되었
다고 하는 제사전(祭司典)
과 합하여 편찬된것이 이
창세기라고 하는것이다 물론
이 네가지 자료(資料) 중에는
그보다 더 오래 전 옛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것은
상상하기 어려운것은 아니나
편찬한 연대는 비교적 먼
옛날이 아니고 거금 二千五
百年전 정도인 시대였을것인
대 그 기사는 상당히 오랜
옛것이口伝과 기록에서 나
온것이였다 이 책은 그와같
은 여러가지 자료에서 편집
된것으로 각이한 특색이 있
으나 오직 일관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중심
한 점에서 이 책을 신앙의
글로서 통일성 있는 책으로
볼게 되는것이다.

四本書의目的 이스라엘 백성에
게 일조의 신앙과 그 역사를
를 보임으로 그 백함을 받
은 자각을 굳게하고 산만한
이스라엘민족이 통일적 국민
의식을 갖게하고 인방국민과
의 접촉에 있어(異敎)민족
과의 사이에서 이러나는 우
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을 경
계하기 위한 점에 있었던
것이다.

五本書의 内容分析
ノ천지개벽의 사실 一―三장
2족장전 사실 四―十一장
3족장(族長)史十二―五十장
「아부라함伝」十二―十五
「이삭伝」三十五―三十八
「야곱伝」三十八―三十九
「요세伝」三十九―四十
「요세伝」三十九―四十

壇

최고의 신앙

요한 十四〇 — 二

講

故朴淵瑞牧師

요한복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컬어지리라」 하시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이 말씀을 하신 예수의 한 말씀과 그 심정을 살펴보자. 예수의 환경에는 약이 성하여 선이 머리들수 없이 되었고 그 사업은 수포에 돌아가고 제자들은 두려워 범법하며 근심만 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십자가의 고형뿐이었다. 황송한 말이나 예수께서 만일 방랑전환을 하셨던들 일신의 영화를 만족히 누리셨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물리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오직 그에게 최고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도의 성웅 칸디를 영국의 관청에서는 잡아가두고 일반호사(一般豪者) 계급과 유산계급에서는 저의 산양유(山羊乳)를 비롯하고 그의 범거승(羊乳)을 비롯하고 그의 물레를 비롯하고 그의 무저항을 비롯한다. 그러나 수백만의 실직자들은 공장주와 유한계급의 몸예 휘감긴 수놓아 판 비단을 눈출겨보고 칼도 없고 총도 없는 천민계급들은 한되만 따르는데

어찌하라 감옥에 있어서 금식을 선언하면 일반민중도 호응한다. 칸디는 말하였다. 나의 사상과 영감은 예수에게로부터 받은바 많다고 또한 사울이 바울이라 이름을 고치게 된 것도 예수의 최고신앙의 강화를 입음이다. 저의 말을 그대로 소개하면 「내가 길이 아노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공세존자나 이계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길이어나 창조를 받은 아무 물건이라도 우리주님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능히 품지 못하리라」 하였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들이 이 민중을 구원하지 못하고 이 사회를 천국화하지 못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지셨던 최고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단련받지 못한 탓이다. 신앙 곧 최저의 신앙을 가지었던 것인 줄을 확실히 알게 된다. 그러면 최고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곧 주께서 가지셨던 신앙이니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시인하는 것이요 세째는 하나님께 나의 몸을 맡기는 것이다. / 하나님을 아는 것. 세상의

新刊紹介

世界の再建



이 책은 MRA의 도덕제무장 운동을 상세히 설명한 책이다. 그 중심은 사회혁명이다. 개인혁명이 혁명의 근본적 다. 개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상은 기독교의 사회혁명에 관한 견해와 비슷한 주장이다. 사실 MRA를 창시한 특명사자가 독실한 기독교신자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그 기반에 기독교가 있음과 같은 관계가 이 운동에도 있다는 것은 독자와 이 운동관계자가 알아야 할 것이다.

이 MRA운동은 우리나라에 도해방후에 드러와서 적지 않은 사람들의 공명을 받고 넓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기반에 기독교가 있는 것 만큼 공산신앙에는 용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자유세계에 있는 공산주의자 중에서는 이 운동에 감명을 받고 사상이 전환된 사람들도 있다.

이 책은 그런 사실 이야기와 조합운동에 있어서 그 운동의 四大원칙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중오감이 사라지고 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 예수 당시에도 예수를 혹은 선지자 혹은 열리아 혹은 세례요한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고 함과같이 지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위의 신으로만 또는 자비의 신으로만 저의 소의로 만들어 놓고 저의 말만 들을 줄 안다. 그래서 저의 하나님에게 저의들의 요구를 구하다가 이루지 못하면 평계치고 폭도려 부수고 배반하고 영을 말아본다. 이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신을 알되 지식적으로 분명히 하셨다. 그는 살아계신 사랑의 아버지로 알고 그 우주의 창조자이요 성리자이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다. 2.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넉넉지 못하다. 야고보 선생의 말과같이 마귀들도 알고 본다 하였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의 사업을 우리의 사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귀한 것이다. 그의 원하시는 뜻은 한 사람이라도 죄에 거하여 있는 것을 심히 슬퍼하신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이 세제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화하고 당신이 친히 주재하시니 물 애용 사랑 고승이 없고 오직 기쁨 사랑 생명 진리만 꼭 차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 있는 운동을 건설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다고 기록 되어있다. 종교적이지 아니라고 하고 가장 이성적(理性的)인 듯 하면서도 혁명적 박력은 역시 적다. 이 책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배울 것은 MRA(도덕제무장) 운동 창시자 후랭크 특명사(처서국사람)의 이론적인 실천면에 가치가 있는 줄 안다. 이 책의 저자는 영변 신문기자라고 한다. 1250

故朴淵瑞 清潭說教集 嚴載熙牧師 編

본래 해방후에 병역으로 신음하다가 六二五때에 공산군에

論壇

正義

지으시려는 것이 그의 목회이다. 주는 이것을 시인하시. 주의 사업으로 알고 영생을 얻에 바치시었다. 주님만 그의 하신 것이 아니라 주를 따르는 최고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다 그리하였었다.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을 시인하고 그 사업을 나의 사업으로 바꾸어 그 사업에 몸을 바치려는 신앙이 있는가?

3. 하나님에게 몸을 바치는 것 하나님만을 알고 그의 사업을 시인하고 완전한 최고의 신앙이

틀다 못해 보다 못해 억울하고 분함을 견뎌내지 못함으로 뜻을 잃어 나의 원한을 천하여 호소하려 한다.

한국전란이 발생한지가 벌써 반세니라는 세월을 지나 사념을 맞게 되었다. 전란이 시작할지 약 二년만에 마르크스주의 대표의 소위 휴전제안후 급일에까지 이르렀다. 三년째는 휴전을 포섭하면서 전후는 계속 되었다. 휴전이라는 조건은 남북분열을 즉三八선이라는 화근을 남겨둔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적에게는 호조건이다. 그리하여 적은 이 휴전이란 조건을 이용하여 외면으로 평화 혹은 휴전을 제창

잡아서 외로이 죽은 박師의 설교를 그친구 엄재희 목사가 편집 출판한 것이다. 박목사는 오래 전에 일본에 와서 대판등지에서 전도한 일도 있었고 예전基督甲報의 주필로 여러해동안 우리 기독교문화사업에 진력하신 분이다. 이제 그 설교집에 나온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사람은 갔으나 그 신앙과 글은 남아서 후인에게 감화와 덕을 끼친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이 설교집이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치기를 바란다.

서울西大門區幸村洞 發行所 一麥社

다 못한다. 여기에는 나의 것을
그나저나 맡기는 일이 있어야
한다. 곧 나에게 있는 소유권
부하 나의 몸과 나의 영을 주께
바치는 것이다. 이것이 말로는
쉬운 일일지 모르나 참으로
생각하는 어렵다. 예수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바치며,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어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러한 불운에 빠
졌으나 태연하사 너희는 마음
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

感

李宗憲牧師

하면서 내부에서는 군세를 확
강해왔으니 一言으로 표명한다
면 적의 군세양상의 해라고 할
수 있다. 제4년은 휴전을 성립
시키고 있는 것일지나 휴전조약을
하야 평화에 해가 될는지 소위
모로소용소관의 위험을 중립국군
대로한다는 美名下에서 적군부
대 또는 적의 완전정복에 해
가 될는지 또 무슨 사태가 출
현할는지 예지할 수 없다. 결국
사실에 있어서 국련군 혹은
미국은 휴전이라는 적의 수단
에 따라서 三년을 지나왔는
데 이 전란때문에 일반 우리
동포중에 전란중에 빠진 난민
은 二百萬인에 달하며 남한에
만 十五萬五千이요 미군이 十
三萬一千九百二十인 기타 국련
군이 一萬一千인 항공기 손해가
一千二百五十四기라고 하며 국
련의 손해만도 二億弗이상이라
한다 하려면 금번 휴전성립
으로 인하여 소련은 외교에
대승리를 획득하였다고 아니
할 수 없으며 中共北韓 기타 共
産衛星國에서는 대승리라고 연
일 들려오는 것이 만세 소리가
아닌가? 그러면 미국서도 전
쟁적 역할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
으며 국련서도 위신을 보존하
였다고 할 것이다 한국반도 중
은곳에서만 전쟁을 끝고 또
클어은 까닭에 만주나 중국
본토까지는 전쟁화하지 않고 세
계에 전화가 파급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미국이나 소련은

었다. 아무런 한 본에 장거었
고 검은용과 붉은용이 악기를
붙여 우주에 폭삭하였으나 필경
은 하나밖에로 승리가 돌아올
것임을 믿으셨다. 우리도 예수
와 같이 모든 성도들과 같이 용
을 하나씩씩 바치자 하나님과
예수와 내가 하나되어 그의
사업만을 위하여 봉사하자 그
러면 우리는 어떠한 영광과
고상 죽음이 닥칠까라도 용
기가 생기어 그와 더불어 싸워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국도와 인민의 안전이 보장되
고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 참
한 희생자를 당한 우리국도와
동포는 어찌되었는가? 한국의
평화와 안전을 보존하기 위하여
싸운 전쟁으로서 우리 한국인
에게 입혀준 피해와 희생은
너무도 과중하지 않은가? 공산
침략을 방지하고 민주정부를
지키기 위하여 한국인의 입은
피해는 너무도 크지 않은가?
휴전에 당면하여 한국동란문
제는 세계각국이 피안의 불처
법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등한일이 아닌가? 약소민족의
당한 사건이라고 너무 냉담하
지 않은가 각국은 그렇게 무관
심하고 등한시할 문제가 아
니요 세계각국에 책임있는 문
제인고로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
이며 그중에도 미국은 더욱
심중히 생각할 것이요 경거망동
할 문제가 아니다 연합국의 책임
자들은 한국인의 발은 참해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아니
하면 안 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
이다 각국에 책임자들은 처지
를 바꾸어 小民族인 韓國民衆
의 몸이 되어보라 그대들은
얼마나 원통하며 어둡고 분
할 것인가? 이런 슬픔과 원한
을 누구에게 호소할 것인가?
그 상대자도 아지 못하는 상태
가 아닌가? 韓戰戰爭에 책임
자는 누구인가?
아! 약소민족의 원통함이여
누가 우리의 이 원한을 정의
로써 심판하야 줄고! 대성으
로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아 성
결하고 진실하신 대주재 그리
스도여! 지상에 거주하는 인
류를 심판하사 우리의 무죄하

를 믿
리라 아니까? (목시十六〇十八)
각관적으로 공평한 심판을 내
리다면 이 참회의 책임은 누
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三八선을 최초로 월남한 북선
군에게 책임이 있는가? 둘째로
三八선을 월북한 국련군이
부담해야 할 것인가? 중공의 공로
이 부담해야 할 것인가? 불연이
그 배후에 있는 대제국이
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인가?
좀 더 깊이 상고한다면 말이다
에서 소련군을 제2차대전 때
참가 시키라고 조종한 것을 결
정한 전미국대통령 루즈벨트에
게 있지 않은가? 그 또는 그와
분할을 체결한 스탈린에게 있
는가? 미국의 극동에 대한
책임은 중대하다 중국을 분리
해놓는 것도 미국의 극동정책에
서 내린 것이며 아세아제국이
공산주의의 침략을 받게 된 것도
미국이 장개석정권의 원조를
공여버린 결과국부가 쇠약하야
집에 따라 중공세력이 강대하
야짐으로 아세아전지역에 공산
세력이 광대하게 된 것은 사실이
중명하고 있음으로 세계가 주
지하는 바가 아닌가? 이 책임
이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 여
기까지 논하야 할 때에 우리는
전쟁이라는 것의 두려운 것을 알
수 있다. 인류를 전쟁으로 몰라
넣는 악마의 힘에 공포하지 않
을 수 없다.

한국의 전란을 단지 대한의
화재로만 생각하고 방관하지 말
라 어느때 그대들의 두상에
도 그와 같은 전화가 떠올리지
않을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들의 정의감은 하처로부터 기
인하는 것이나 하면 제1은 미국
국련군이 공산침략자를 제재하
라는 정의감에서 출동하였다가
지금에는 불의자 즉 침략자에게
폭박하는 의의로 침략자와 타
협하라는 것, 제2는 침략자들의
평화공세 즉 가정평화휴전이라
는 수단에 빠져서 비겁한 태
도를 취하고 있는 것 제3은 정
의를 위하여 싸우다가 다수의
인명과 재산만 소비하고 하등
에 성과도 수확하지 못하고 휴
전이라는 구렁이로 도피하라는
것, 제4는 한국내에 전세계의

화근을 남겨두고 휴전하라는 것, 제5는
과 포로관리용으로 침략자측
군대를 중가 투입시키라는 것, 제
5는 전쟁의 희생국과 하는
등에 협의도 없이 민주주의의
영의 기본원칙인 타인의 인권
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휴전하
는 것(註釋) 제6은 공산주의
측(북)의 불 배양하야 그 세
력이 강대하여짐으로 그 정권
을 인정하라는 즉 중공정권이
인정되어야 하려한 정권이든지
그 정권의 기본정신은 고찰하
지 않고 어떤 악사상이라도 강
제가 인정하라는 세력만 있으면
강대하여짐 그 세력을 정권
으로 인정하라는 어찌 불의
가 용납하야 강대한 세력을
장악하지 않을 리요! 그러
므로 현실이 불의악화하야 부
패하지 않고 어찌하리오! 원정
자들이여! 진정한 정의의 불
사라 진정한 정의란 한 시대
강대국민의 복지만을 향유하
고 약소민족을 무시하지 말고
구원한 인류의 근본적 복지를
위하야 노력할지이다 불연이면
대주재의 내일의 심판을 면하
지 못할 것이다.

한바와 같이 東京교회 오윤태
名古屋教會의喜消息
名古屋교회에서는 이미 보도
한바와 같이 東京교회 오윤태

루터의結婚班指
최근 아메리카 미네소타주
セント폴市에서 종교개혁자 말
틴루터의 결혼반지가 공개되
었다. 그 반지에는 그리스도께
서 십자가에 달리신 화상이
그려져 있고 속에는 말틴루터
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사실 말틴루터는 一五二五
年六月十三일에 순서 카타리나
와 결혼을 하였다. 이
반지는 오스트리아사람인 여자
의사 니나로레스에게 그 아
버지가 二十六年전에 오스트
리아에서 얻은 것을 선물로 준
것이라 한다.

조심한 것은 어디라 하기 전
에 대동강 연안에서 이러저러
한 것이라 하고 이 강의 역
사는 오랜 것이다.
강 연역 무에 발전한 거리
평안이나 성천(咸川) 같은 곳
은 모두 가자 낙랑 고구려등
에서 부터 유
서 깊은 땅이고
중국 대륙문화
는 일찍부터 이
근방에 전하여
졌던 것이다.
누가 보든지
그러하였으리라
고 느꼈것은 강
변 좌우에 넓은
벌판이 있고
강도 큼직하게
구비치며 흐른
도 전천하거니와
평안 가까이 보
상까지는 二千
금의 거니이 출
입할 수도 있었
다는 것은 믿을
직 한 것이다
(咸川)
東明館

共產主義者의 新平和運動

指導에 對한 老練

제임스 이 찰스 어 博士

(2)

여러가지 이유도 많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그들
에게는 전쟁에 시달려서 후식
이 필요하다는 것과 내부적인 나
의 부조관계에 있어서 지금 또
런이 취하고있는 정책이 마치
평화의 천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채하는 결론을 자아내는
곳에 있다.

배세스타부 엠 모로투부가
마평코부 신정부의 외무
장관이라는 단지 이 사실
만하여도 민주주의 자유제국에
게 지금 크레우림으로부터 우
리들에게 물려어지는 달콤하고
신사적 발언만을 가지고 진실로
영원한 건설적인 세계평화를
기대할수없다는것을 확신케하고
도 남음이있다.

교활하고 술취한인 모로투부
는 一九三九년이래로 소련공산
당의 주요한 외교관계의 담당
자이었으며 또한 그는 우리
자유제국과 약속한것을 너무나
많이 이행하지않을뿐더러 기만
적 행동만한것을 보아서도
만일 모스크바의 지도자들이
진실로 그들의 소위 평화를
희망한다고 할것같은 어찌하
여 모로투부보담 더 나은 경
력을 가진사람을 내놓지않는지
우리는 의심하는것이다.
그의 무례한 행동을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 극단적인
행에 정중성이 없는것과 냉정
한 논쟁을 지니고 조그만한
안경을 쓴 이 사람은 세계를
통하여 잘 알리워지고있다 아
무리 순진한 사람이라도 현대
공산주의의 잔인한 행위로
잘 알려져있는 막스주의가 세
계통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
이고있다는것밖에 이 이상 다
른것을 기대할수는 없을것이다
모로투부는 민주주의적관점으로
보아서는 아무런 칭찬할만한것
은 없다 다만 그가 종사하고
있는 일에 위곡수단을 쓰든가
또는 기만적행동을 할수있는
파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뿐
이다. 영국수상 처칠씨는 그를
가리켜 비상한 능력이인 동시
에 냉담한인한 사람이라고 하
였다 누구나 위대한 인격을 존
중하는 사람이면 모로투부를
칭찬할자는 없을것이다 그리고
그와 접촉한 사람들은 그의
외교적논쟁에 능력에 대하여
단단한 주의를 가지지않으면

안된다 그는 여러가지 전술을
가지고있으며 또한 냉정하게
그의 희생자들에 대하여 연구
를 해가지고 그들을 취급하는
데 가장 성공할수 있을듯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것이다.
모로투부는 비야실부 스크리아
빈에서 탄생하였으며 본시 어
린 소매상의 서기의 자식으로
동민은 아니었다.

友 愛

古詩調鑑賞(5)

형아아우야 鄭 徵 作
네살을 만져보자
뒤손에 태넷관대
양자조차 같이산다
한껏 먹고 길러나아서
만 마음을 먹지말아
註 태넷관대-성겨났는데
같이산다-같이구나
이그진 저 늙은이
집부터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인을 무겨우랴
늙기도 설어라커든
집을 조차 지킬까
註 이그진-머리에 이고
설어라커든-설거든
뜻. 늙은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것을 보고
젊은이가 대신해주겠다는 생각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매고 가자스라
산 나물
고기도곤
草屋 좁은
기덕옥 내
다만당 임
시름 겨워
註 고기
뜻. 솜
위 밭을막
맛이있으나
는 벗이
섭다.

한글 교실

(제15시간)

張 曉

(3) 풀이씨의 끝바꿈
(用言의 語尾變化)
지난 시간에 말한 것과 같
이, 풀이씨에는 줄기(語幹)가
되는 부분과 씨끝(語尾)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풀이
씨의 드러내는 범위와 관계에
따라서 그 씨끝이 바뀌어 집
니다. 이 씨끝이 바뀌는 일을
풀이씨의 끝바꿈(語尾變化)이
라 합니다. 풀이씨는 줄기만으
로는 쓰일 수 없고 "먹는다,
먹으니"와 같이 끝바꿈하여서
만 쓰입니다.

저 임자씨가 토와 어우를
때와 같이 풀이씨의 끝바꿈에
도 법칙이 있습니다.
(7) 작~으니
크~~~니~~니 (크니)
작~으면
크~~~면~~면 (크면)
작~으니니다 (작읍니다)
크~~~니다~~니다 (크읍니다)
이와 같이 줄기 "작"에는 받
침이 있으므로 "으니, 으면"을
니다"가 붙고, 줄기 "크"에는
받침이 없으므로 "으"가 없어
지고 "니, 면, 니다"만 붙습
니다. 이 "으"는 소리를 고르
는 고름소리(調音素)입니다.
(1) 자~는다
먹~~~는다~~는다
또 이와 같이 "으" 아니라도
받침 있고 없음에 따라 구별

금~어(揠)
뜰~어서(橘)
1 길~어 (長)
잊~어서(忘)
2 뻗~어 (拔)
맺~어서(結)
3 배~어 (背)
세~어서(算)
4 되~어 (成)
5 꼬~어서(誇)
6 뛰~어 (躍)
쉬~어서(休)
7 띄~어 (使難)
희~어서(白)
"아, 아서....."로 할 것
1 앉~아 (座)
많~아서(多)
1 좋~아 (好)
보~아서(見)
이와 같이 줄기 "막"의 홀소
리는 "1"이므로 그 아래에
붙는 씨끝 "어, 아" 가운데의
"어"가 붙습니다. 이 법칙에
따르지 않고 "았어, 많아서"로
하면 틀립니다. 곧 줄기 끝의
홀소리가 1, ㅌ, ㅍ, ㅊ, ㅋ,
ㅌ, ㅍ, ㅊ, ㅊ, ㅊ 인 때에는 "어,
어서, 어라(었다)"가 붙고,
줄기 끝의 홀소리가 "ㅌ, ㅌ"
인 때는 아, 아서, 아라, (았
다)가 붙습니다.
(2) 읽~네
보~네
읽~자

電話 (25) 6327番